

## 3.2 음악산업 전체 매출 현황

2009년 음악산업 전체 매출액은 2007년에 2조 3,577억 원에서 2008년에 2조 6,020억 원, 2009년에 2조 7,4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5.3%, 연평균 7.8% 증가하였다. 중분류별로 매출액을 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이 1조 3,399억 원(48.9%)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5,696억 원(20.8%)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 다음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다. '음악 제작업'은 3,603억 원(13.1%)이며, '음악공연업'은 2,576억 원(9.4%)으로 조사되었다. '음반 도소매업'은 1,200억 원(4.4%)이며, '음반복제 및 배급업'은 830억 원(3.0%)이며,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101억 원(0.4%)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온라인 음악유통업'이 2007년에 4,276억 원에서 2008년에 5,264억 원, 2009년에 5,696억 원으로 가장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전년대비 8.2%, 연평균 15.4% 증가한 수치이다. '음악 공연업' 또한 '온라인 음악유통업'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576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제작업' 또한 2008년에 3,210억 원에서 2009년에 3,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지만 2007년 매출액 3,93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연평균증감률은 4.3% 감소하였다. '음반 도소매업'은 2009년에 1,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나 2007년 매출액인 1,52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평균증감률은 11.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과 음반배급' 및 '복제업'은 각각 전년대비 12.2%, 12.7% 감소하였다.

2009년 음악산업은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과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인터넷 음악 소매업과 인터넷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음악공연업은 활기를 보이며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눈에 띄만한 성장을 보인 곳이 없었고 감소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주듯 음반 산업의 불황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의 침체로 인해 음반 제작사들은 정규앨범 발매 대신에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미니앨범이나 디지털 싱글 발매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대처할 수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으로 인해 음반시장의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 음반 시장의 장기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규모의 확대 현상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맞물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에도 난제가 있다. 첫째는 온라인 유통업의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이 이미 성장 단계를 지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액은 2007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미 수년간 이용자들의 구매 욕구가 어느 수준까지 충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는 음반 제작자들과의 수익 분배 문제다. 현재 국내 음악산업은 음악 제작자들보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자들에게 마진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익 분배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어떠한 시각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점은 다르겠지만, 양자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는 합의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4 음악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	76,270	80,231	73,528	2.7	▽8.4	▽1.8
		음반외수익(음악관련)	186,729	201,611	254,459	9.3	26.2	16.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30,195	39,246	32,342	1.1	▽17.6	▽50.2
	소계		393,194	321,088	360,329	13.1	12.2	▽4.3
음악 및 오디오출판업	음악 오디오출판업		-	10,898	9,424	0.4	▽13.5	-
	기타 오디오출판업		-	608	676	0.0	11.2	-
	소계		-	11,506	10,100	0.4	▽12.2	-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	42,348	38,321	1.4	▽9.5	-
	음반 배급업**		-	52,742	44,705	1.6	▽15.2	-
	소계		-	95,090	83,026	3.0	▽12.7	-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38,177	103,195	36,655	1.3	▽3.3	▽15.0
	음반 소매업		-	-	63,117	2.3		
	인터넷 음반 소매업***		13,917	16,634	20,267	0.8	21.8	20.7
	소계		152,094	119,829	120,039	4.4	0.2	▽11.2
온라인 음악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3,170	87,650	76,502	2.8	▽12.7	▽13.9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6,756	253,082	359,969	13.1	42.2	46.9
	음원대리 중개업		18,519	39,671	60,331	2.2	52.1	80.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39,204	146,042	72,799	2.7	▽50.2	▽27.7
	소계		427,649	526,445	569,601	20.8	8.2	15.4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98,853	213,851	224,359	8.2	4.9	6.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24,744	27,801	33,303	1.2	19.8	16.0
	소계		223,597	241,652	257,662	9.4	6.6	7.3
종합계****		1,196,534	1,315,610	1,400,757	51.1	6.5	8.2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1,161,171	1,286,466	1,339,996	48.9	4.2	7.4
	소계		1,161,171	1,286,466	1,339,996	48.9	4.2	7.4
음악산업 합계		2,357,705	2,602,076	2,740,753	100.0	5.3	7.8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음원)녹음시설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되어 2006년과 2007년 직접비교는 무리  
 \*\* 2008년 기준조사 음반 도소매업에서 배급업 분리됨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 2006년, 2007년 매출액은 음반매출외(음악관련)매출액 및 음악공연매출액 포함매출

**그림 4.3.1 음악산업 중분류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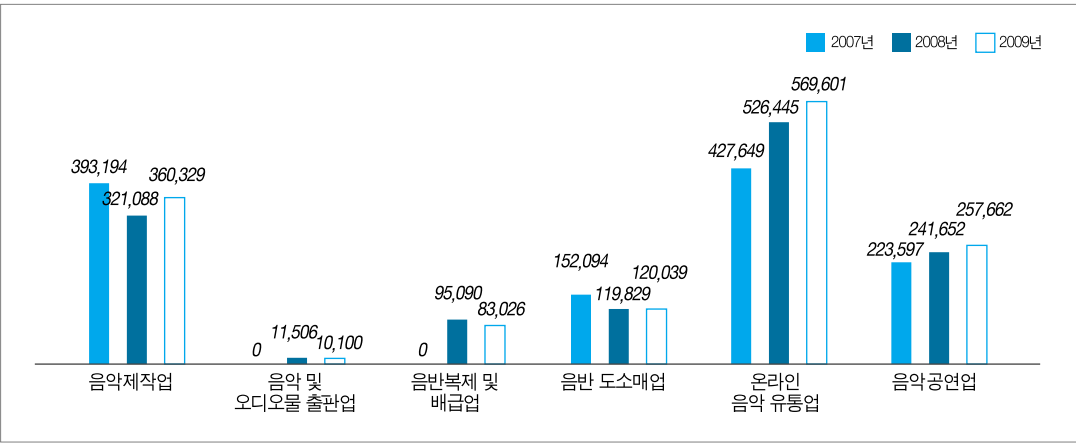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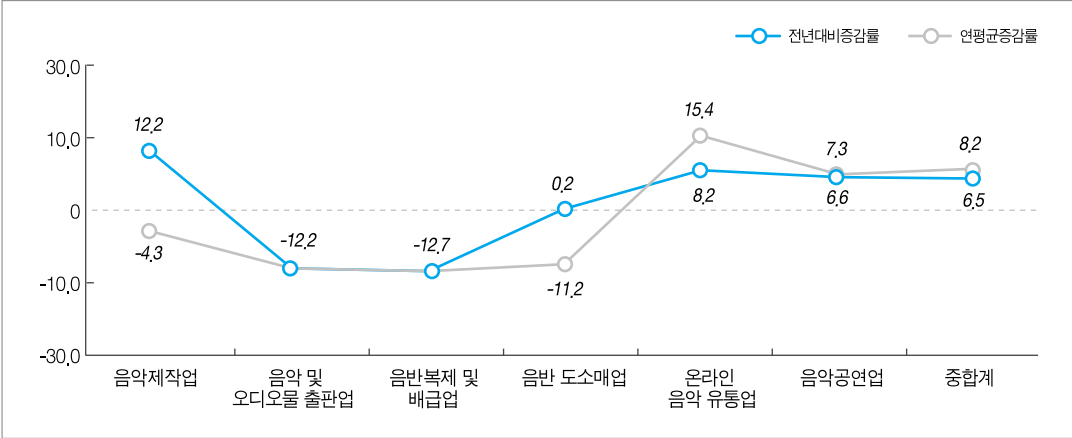


그림 4.3.2 음악산업 중분류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연평균증감률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적용하여 산출

### 3.2.1. 음악제작업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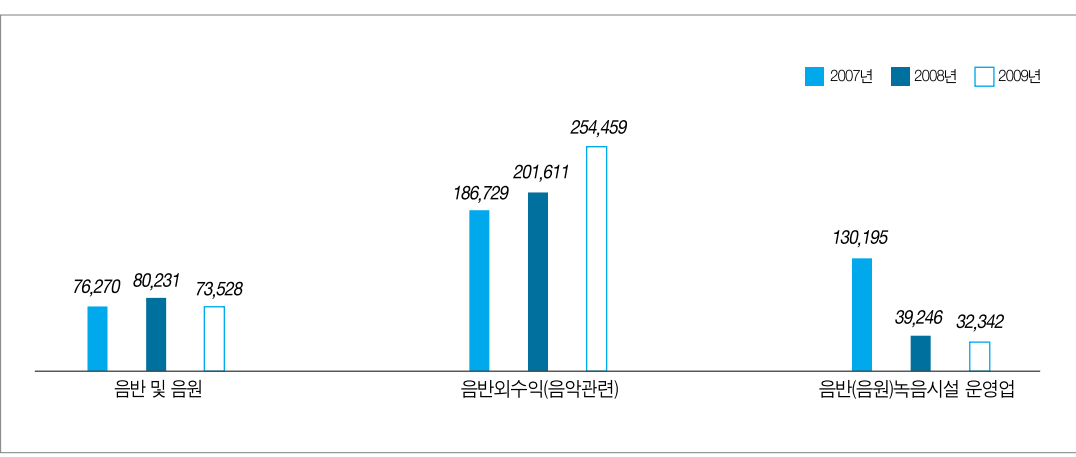
2009년 음악제작업 매출을 보면 3,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으나, 연평균은 4.3% 감소하였다. 음악제작업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의 매출액은 2,544억 원으로 음악제작업 내 매출액의 70.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 및 음원’은 735억 원으로 20.4%의 비중을 보이며,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은 323억 원으로 가장 낮은 9.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이 2007년 1,867억 원에서 2008년에 2,016억 원, 2009년에 2,544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26.2%, 연평균 16.7% 증가하여 중분류 내 유일하게 성장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음반 및 음원’은 2007년에 762억 원에서 2008년에 802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09년에 735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4%, 연평균 1.8%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의 감소현상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에 1,301억 원에서 2008년에 392억 원으로 무려 90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69억 원이 감소한 3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연평균증감률은 무려 50.2% 감소하여 2007년 매출액의 1/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음반 및 음원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에 음반 외 수익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음반 및 음원 제작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음반 외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음반과 음원의 판매가 저조하여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음반과 음원에 대한 정당한 가격 지불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표 4.3.5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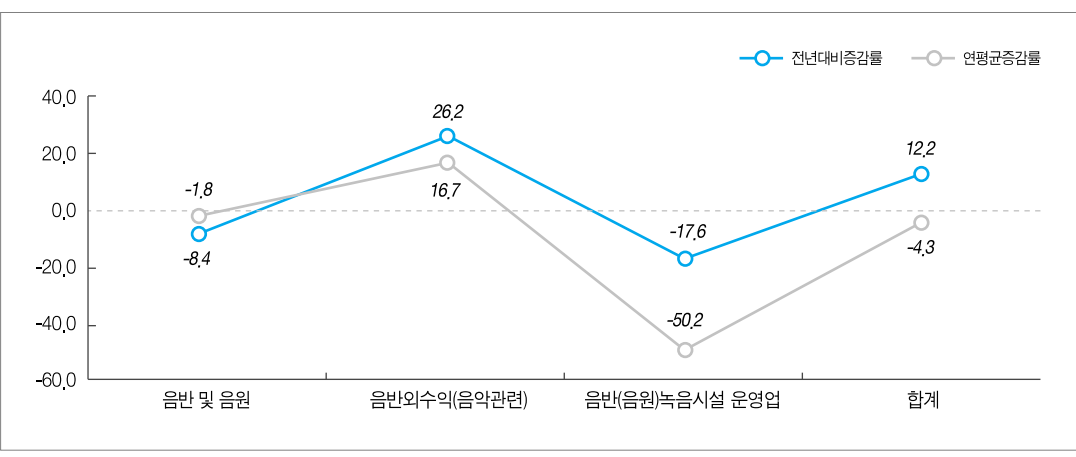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	76,270	80,231	73,528	2.7	▽8.4	▽1.8
		음반외수익(음악관련)	186,729	201,611	254,459	9.3	26.2	16.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30,195	39,246	32,342	1.1	▽17.6	▽50.2	
	소계	393,194	321,088	360,329	13.1	12.2	▽4.3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음원)녹음시설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되어 2006년과 2007년 직접비교는 무리

**그림 4.3.3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그림 4.3.4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2.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sup>15)</sup>

2009년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매출액은 10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소분류별로는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이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이 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음반 배급 및 복제업’은 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다. 소분류별로는 ‘음반 복제업’이 383억 원으로 전년대비 9.5%감소하였으며, ‘음반 배급업’은 4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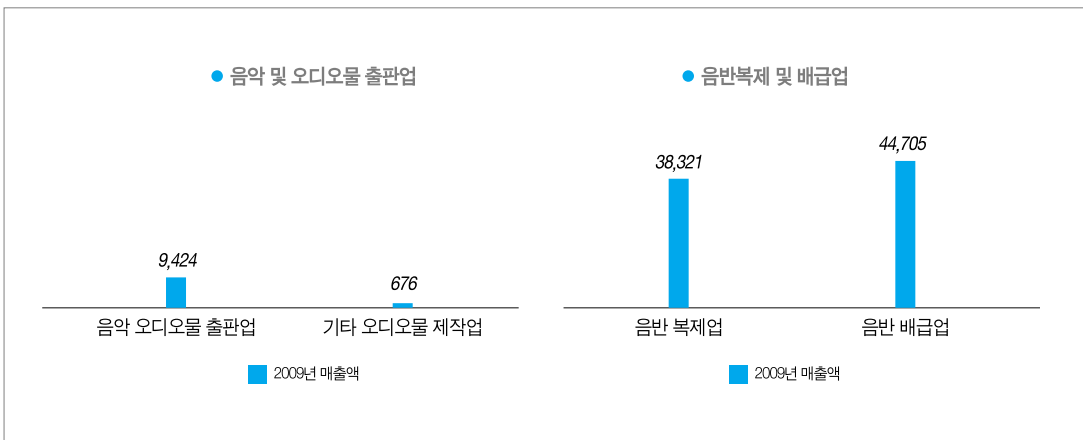
음반 복제와 배급업의 규모 감소는 음반 제작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음반의 복제와 배급 물량도 감소시켜 전체적인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6 음악 및 오디오물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	10,898	9,424	93.3	▽13.5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608	676	6.7	11.2
	소계	-	11,506	10,100	100.0	▽12.2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	42,348	38,321	46.2	▽9.5
	음반 배급업*	-	52,742	44,705	53.8	▽15.2
	소계	-	95,090	83,026	100.0	▽12.7

\* 2008년 기준조사 음반 도소매업에서 배급업 분리됨

**그림 4.3.5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3.2.3. 음반 도소매업

2009년 음반 도소매업 매출액은 1,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나 연평균은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구성을 보면 ‘음반 도매업’은 366억 원이며, ‘음반 소매업’은 631억 원, ‘인터넷 음반 소매업’은 20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음반 도매업’과 ‘소매업’을 합한 매출액은 997억 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15.0% 감소하였다. ‘인터넷 음반 소매업’은 2007년에 139억 원에서 2008년에 166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202억 원의 매출을 기록

15) 2008년 기준조사 신규 및 추가 분류체계이므로 2008년 기준조사 자료이외에 비교자료 없음

하여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도 2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터넷 음반 소매업'의 매출 증대는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음반 구매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익이 다른 창구에 비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3.7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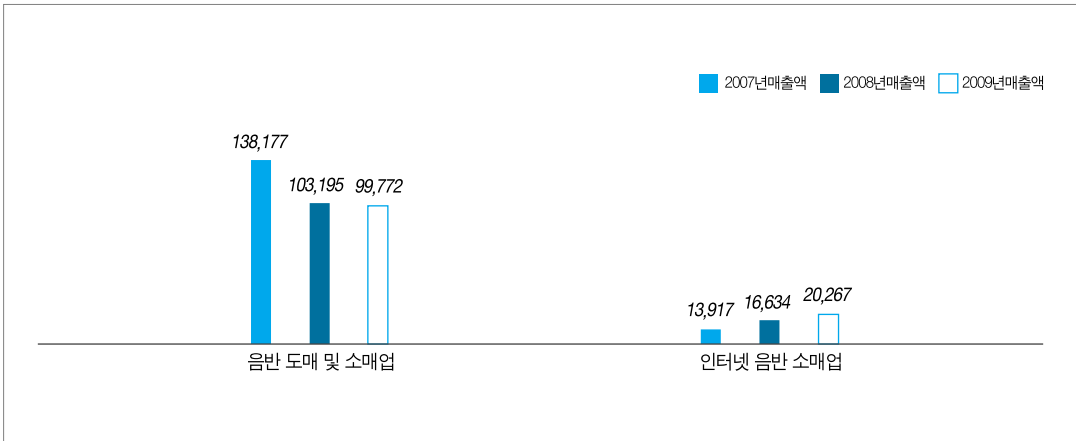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38,177	103,195	36,655	30.5	▽3.3	▽15.0
	음반 소매업			63,117	52.6		
	인터넷 음반 소매업*	13,917	16,634	20,267	16.9	21.8	20.7
	소계	152,094	119,829	120,039	100.0	0.2	▽11.2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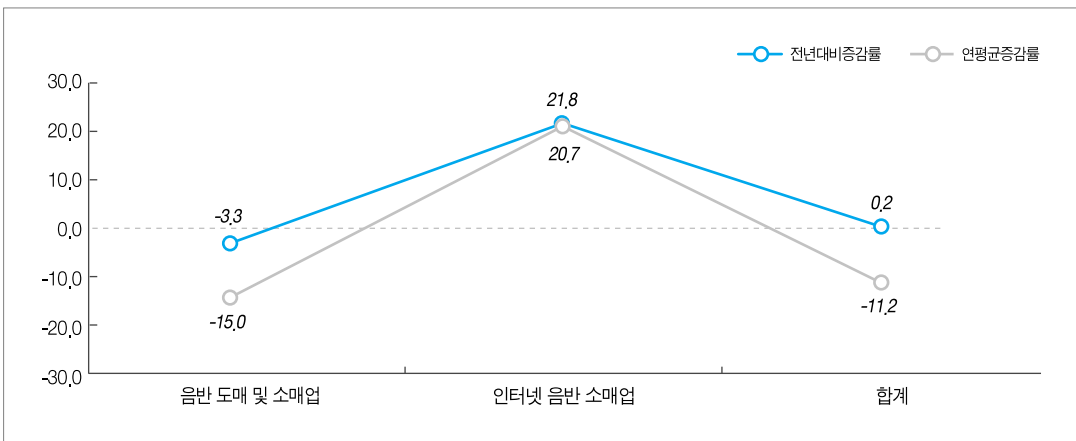
**그림 4.3.6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그림 4.3.7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4. 온라인 음악 유통업

2009년 온라인 음악 유통업 매출액은 5,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15.4% 증가하였다. 소분류별로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이 3,599억 원으로 ‘온라인 음악 유통업’ 내 63.2%의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765억 원(13.4%)이며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은 727억 원(12.8%), ‘음원대리 중개업’은 603억 원(10.6%)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에 1,667억 원에서 2008년에 2,530억 원, 그리고 2009년에 3,59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42.2%, 연평균 46.9%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음원대리 중개업’은 2007년에 185억 원, 2008년에 396억 원, 2009년에 60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52.1%, 연평균 80.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부터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9년에는 7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며, 연평균은 13.9% 감소하였다.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은 2009년에 727억 원으로 2008년 매출액인 1,460억 원의 1/2 규모로 축소되었고, 전년대비 50.2% 감소하였다.

2009년에 가장 큰 증가폭을 이룬 ‘온라인 음악 유통업’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과 ‘음원대리 중개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은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며 성장하였고,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에 따라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증대 이면에는 음반제작사와의 이익 분배에 따른 논란이 존재하며, 향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수년간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져 구매욕구가 시장 초기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3,170	87,650	76,502	13.4	▽12.7	▽13.9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6,756	253,082	359,969	63.2	42.2	46.9
음원대리 중개업	18,519	39,671	60,331	10.6	52.1	80.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39,204	146,042	72,799	12.8	▽50.2	▽27.7
소계	427,649	526,445	569,601	100.0	8.2	15.4

그림 4.3.8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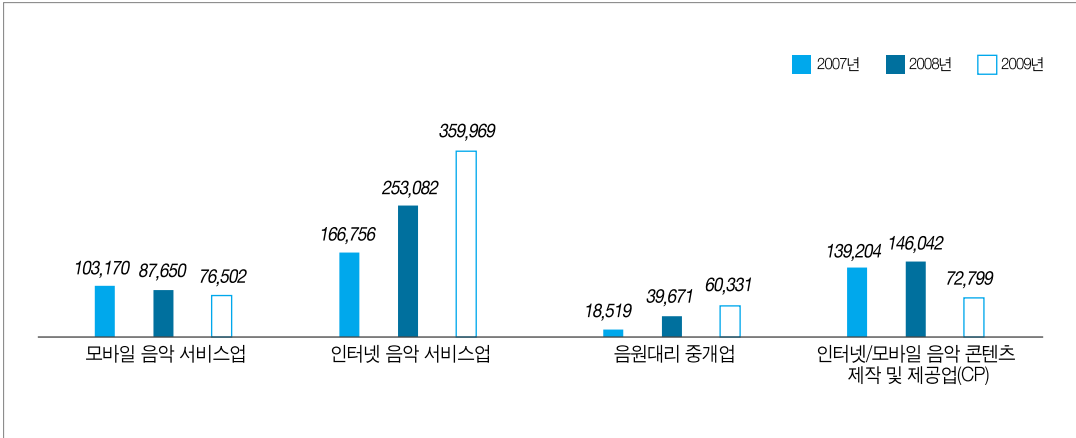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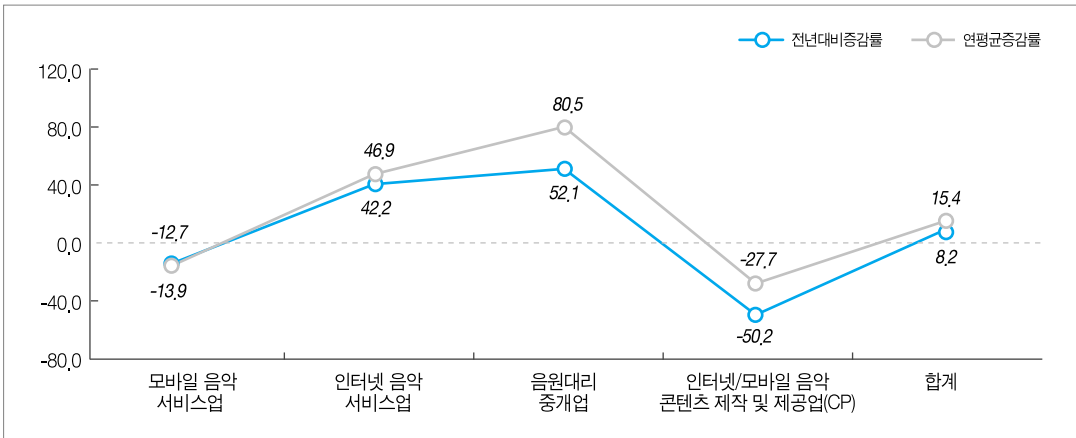


그림 4.3.9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5. 음악 공연업

2009년의 음악 공연업 매출액은 2,576억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7.3% 증가하였다. 음악 공연업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은 2,243억 원으로 음악 공연업 내 87.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 등)’은 333억 원으로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은 2007년에 1,988억 원에서 2008년에 2,138억 원, 2009년에 2,24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9%, 연평균 6.2% 증가한 수치이다.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 등)’은 2007년에 247억 원에서 2008년에 27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333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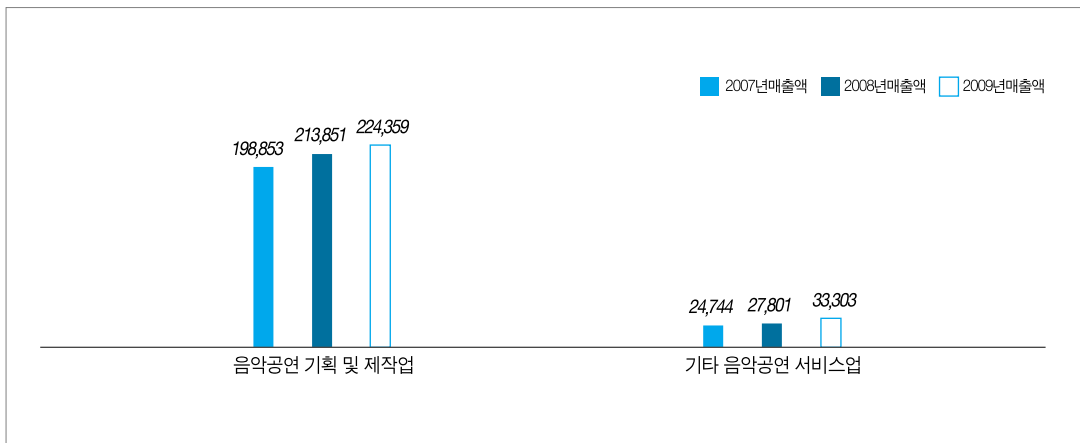
음악 공연의 매출은 2007년부터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음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연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하나의 추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질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면 더 높은 성장 폭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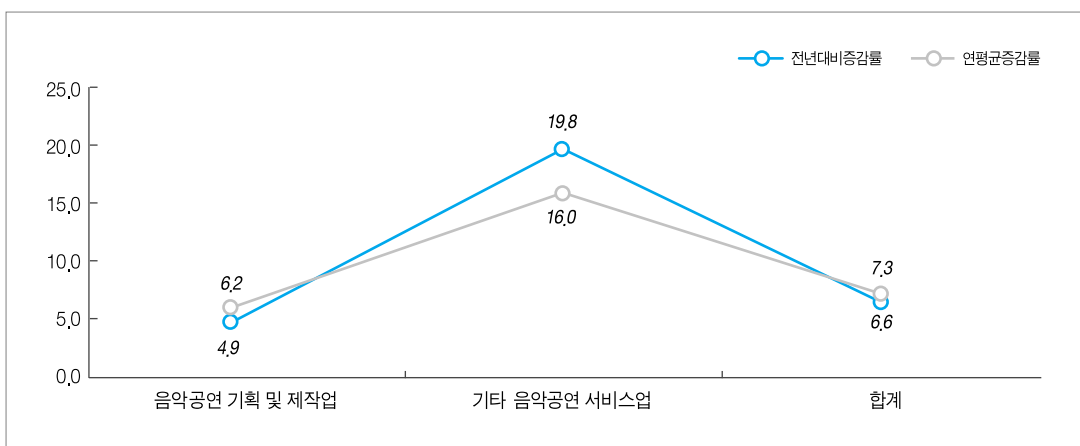
**표 4.3.9 음악 공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98,853	213,851	224,359	87.1	4.9	6.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24,744	27,801	33,303	12.9	19.8	16.0
소계	223,597	241,652	257,662	100.0	6.6	7.3

**그림 4.3.10 음악공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그림 4.3.11 음악 공연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표 4.3.10 음악공연업 장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클래식	오페라	기타	합계
2007년	128,121	30,856	33,383	11,404	19,833	223,597
2008년	142,807	39,215	36,735	12,056	10,839	241,652
2009년	142,331	43,695	41,132	14,115	16,389	257,662
2009년 비중(%)	55.2	17.0	16.0	5.4	6.4	100.0
전년대비증감률(%)	▽0.3	11.4	12.0	17.1	51.2	6.6
연평균증감률(%)	5.4	19.0	11.0	11.3	▽9.1	7.3

그림 4.3.12 음악공연업 장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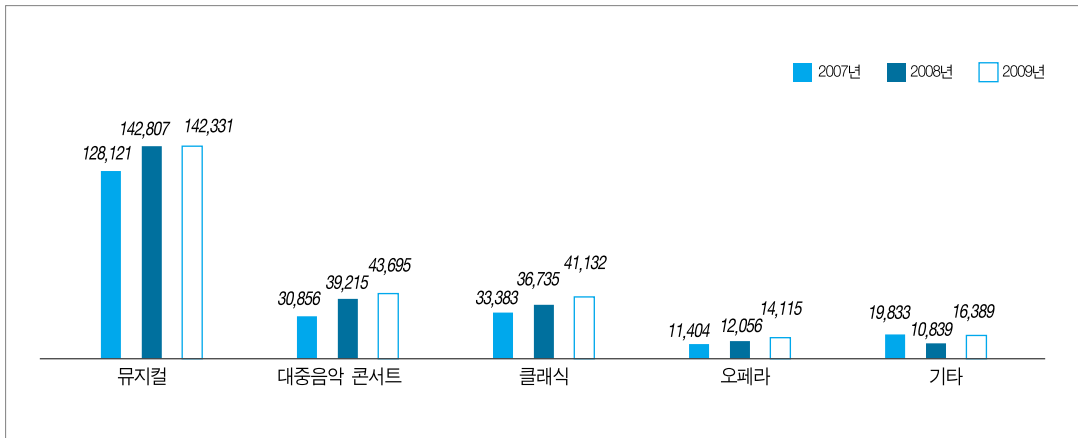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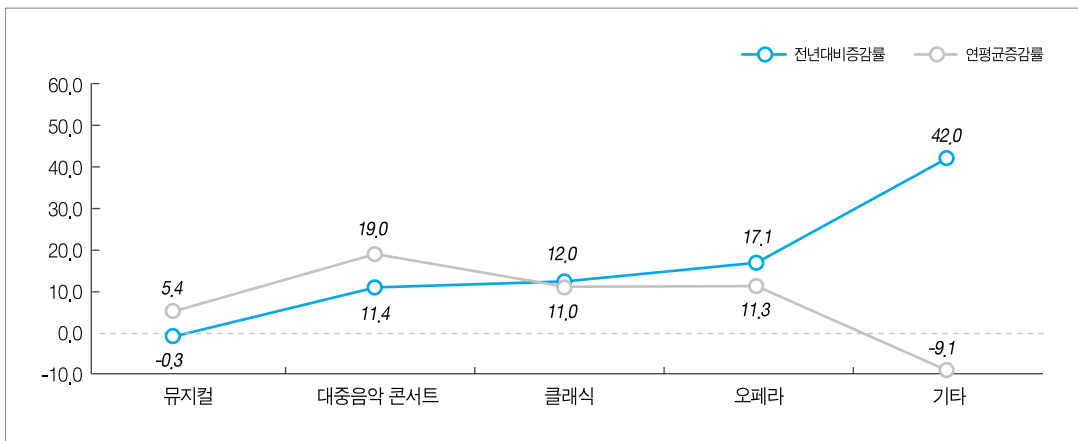


그림 4.3.13 음악공연업 장르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6. 노래연습장 운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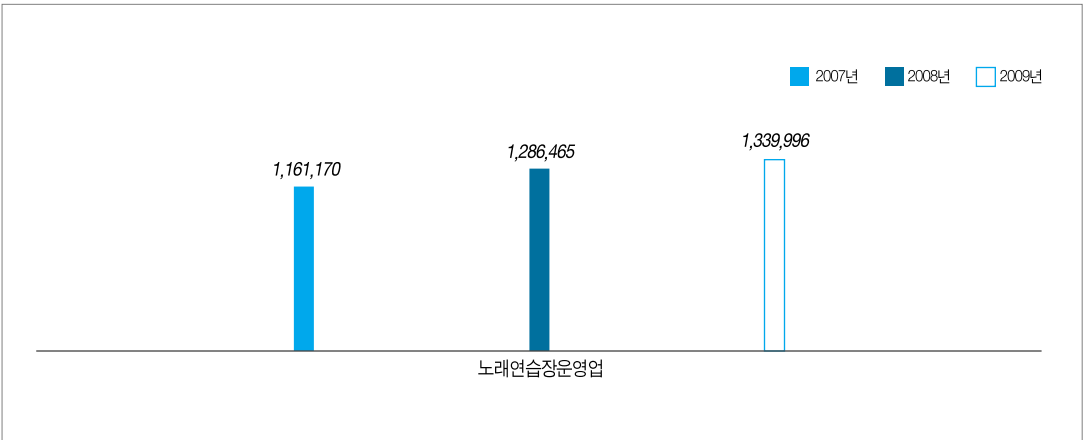
2009년의 노래연습장 운영업 매출액은 1조 3,399억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7.4%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체수가 2008년 대비 약 547개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럭셔리 노래연습장의 등장으로 인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 된 것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대비 2008년 상반기에 평균 25% 요금인상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럭셔리한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이러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3.11 노래연습장 운영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노래연습장 운영업	1,161,170	1,286,465	1,339,996	100.0	4.2	7.4
소계	1,161,170	1,286,465	1,339,996	100.0	4.2	7.4

**그림 4.3.14 노래연습장 운영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3.2.7.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음악산업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중 '유통/배급' 매출액은 2조5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4.8%를 차지하였다. '창작 및 제작' 매출액은 3,495억 원으로 12.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매출액은 2,627억 원으로 9.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복제' 매출액은 394억 원(1.4%)이며, '제작지원' 매출액은 389억 원(1.4%)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중분류별 매출액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음악산업은 음반과 음원 제작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었지만, 유통배급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반영하듯, 사업 형태별 매출액도 창작 및 제작과 제작지원, 단순복제는 감소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통/배급과 기타사업의 매출액만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표 4.3.12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창작 및 제작	제작 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71,693	6,685	2,168	7,697	239,744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3,265	26,169	1,068	1,139	701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8,835	-	-	589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436	-	-	240	-	676
음반 복제업	2,106	-	36,215	-	-	38,321
음반 배급업	96	-	-	44,609	-	44,705
음반 도매업	-	-	-	36,655	-	36,655
음반 소매업	-	-	-	63,117	-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20,267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	76,502	-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31,695	-	-	321,737	6,537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1,638	-	-	58,693	-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21,698	3,256	-	44,190	3,655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07,138	2,869	-	2,985	11,367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979	-	-	31,626	698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1,339,996	-	1,339,996
합계	349,579	38,979	39,451	2,050,042	262,702	2,740,753
비중(%)	12.8	1.4	1.4	74.8	9.6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연도별로 보면 '유통/배급'의 매출액이 2007년에 1조 6,978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 1조 8,652억 원이었고, 2009년에 2조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와 연평균 각각 9.9%씩 증가하여 다른 사업형태별 매출액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가파른 성장 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매출액도 2007년에 2,116억 원에서 2008년에 2,144억 원, 2009년에 2,627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2.5%, 연평균 1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작 지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2009년 매출액이 389억 원으로 2007년 매출액 796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연평균 3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연간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단순복제' 매출액의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고, 연평균도 8.3% 감소하였다. '창작 및 제작' 매출액은 2007년에 3,216억 원에서 2008년에 4,307억 원으로 증가한 후에 2009년에 다시 3,495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연평균증감률 보면 4.3% 증가하였다.

**표 4.3.13 사업형태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창작 및 제작	제작 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2007년	321,634	79,697	46,900	1,697,808	211,665	2,357,704
2008년	430,726	48,124	43,511	1,865,246	214,468	2,602,075
2009년	349,579	38,979	39,451	2,050,042	262,702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18.8	▽19.0	▽9.3	9.9	22.5	5.3
연평균증감률(%)	4.3	▽30.1	▽8.3	9.9	11.4	7.8

그림 4.3.15 음악산업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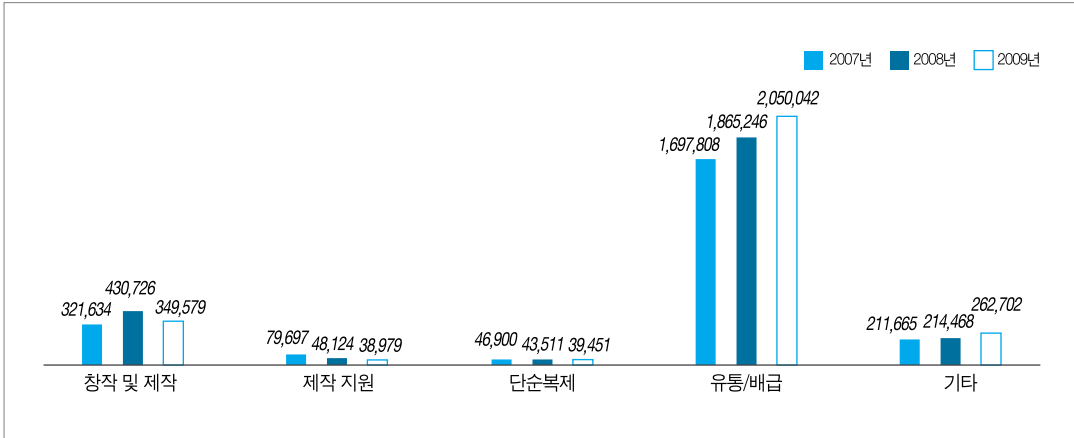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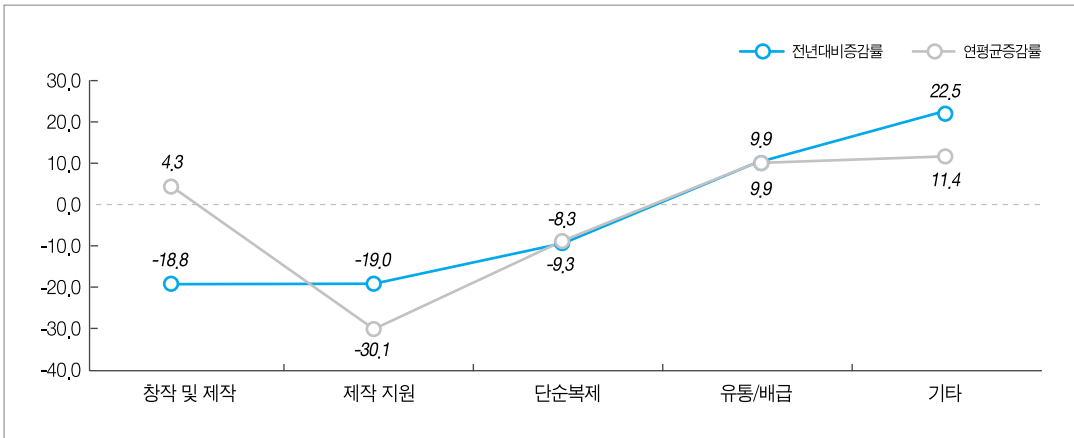


그림 4.3.16 사업형태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8.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음악산업 매출액을 사업체들의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사업체 매출액은 1조 2,68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00억 원 이상' 사업체 매출액이 7,6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8.0%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은 '10~100억 원 미만' 사업체가 매출액 5,041억 원(18.4%), '1~10억 원 미만' 사업체 2,021억 원(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한편, '10~100억 원 미만' 규모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1~10억 원 미만' 규모의 매출액은 2008년 대비 증가한편이지만 2007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장기적인 음악시장의 불황이 중·대형업체와 소형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음악시장의 불황이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대형업체는 이에 대응할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어 극복이 가능하지만 소형업체는 장기적 불황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업체보다 불황 때문에 받는 악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14 매출액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2,068	45,369	133,897	146,653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503	9,986	21,853	-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269	2,668	6,487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676	-	-	-	676
음반 복제업	456	1,138	36,727	-	38,321
음반 배급업	-	1,635	15,369	27,701	44,705
음반 도매업	139	3,139	11,698	21,679	36,655
음반 소매업	1,367	11,386	26,958	23,406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20,267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	76,502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69	698	9,215	349,987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56	1,657	27,693	30,925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752	8,351	41,285	22,411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369	28,795	126,210	66,985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152	6,691	26,460	-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1,259,367	80,629	-	-	1,339,996
<b>합계</b>	<b>1,268,243</b>	<b>202,142</b>	<b>504,119</b>	<b>766,249</b>	<b>2,740,753</b>
<b>비중(%)</b>	<b>46.2</b>	<b>7.4</b>	<b>18.4</b>	<b>28.0</b>	<b>100.0</b>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이를 연도별로 보면 '10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2007년에 5,115억 원, 2008년에 6,595억 원, 2009년에 7,662억 원으로 조사되면서 200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6.2%, 연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10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에 5,280억 원, 2008년에 5,340억 원, 2009년에 5,041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5.6%, 연평균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10억 원 미만'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 2,229억 원, 2008년 1,927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09년에 다시 2,02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4.8% 감소하였다. 한편 '1억 원 미만'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에 1조 952억 원에서 2009년에 1조 2,682억 원으로 연평균이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5 매출액 규모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2007년	1,095,224	222,937	528,005	511,538	2,357,704
2008년	1,215,729	192,744	534,021	659,581	2,602,075
2009년	1,268,243	202,142	504,119	766,249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4.3	4.9	▽5.6	16.2	5.3
연평균증감률(%)	7.6	▽4.8	▽2.3	22.4	7.8

그림 4.3.17 매출액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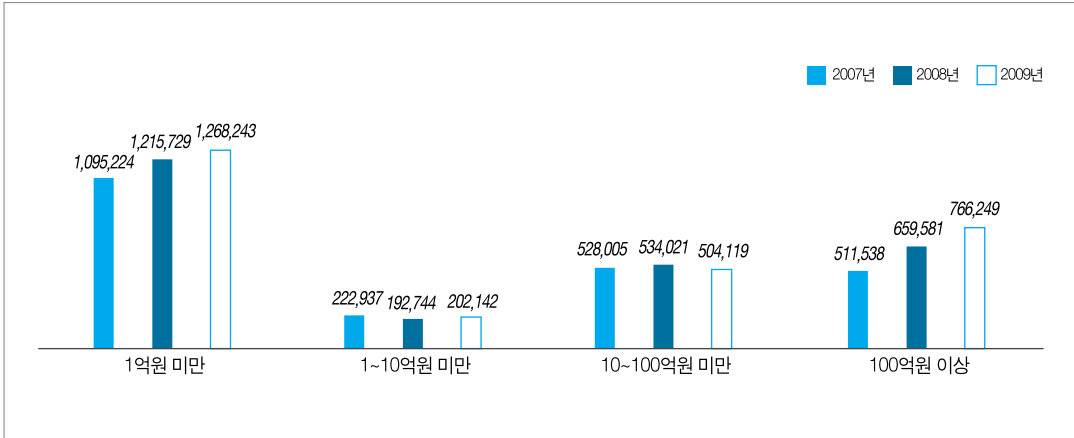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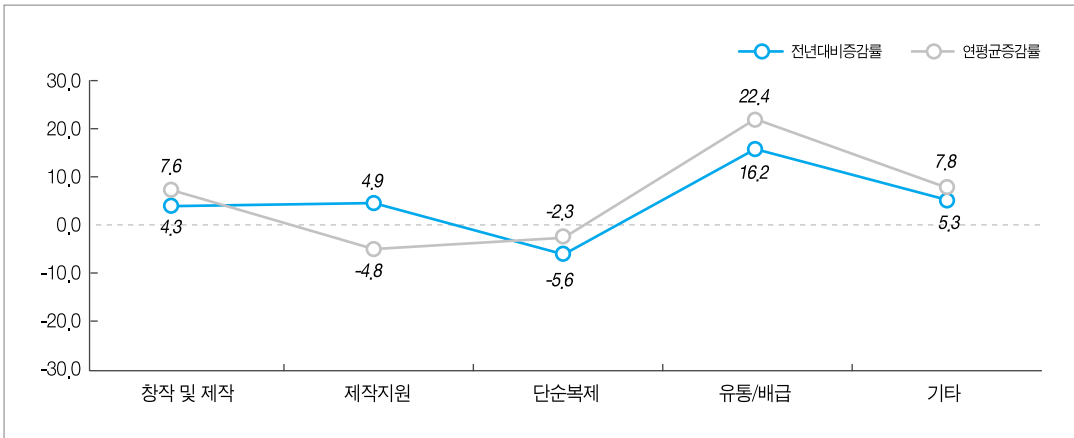


그림 4.3.18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9.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2009년 음악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을 보면 '1~4인' 규모 매출액이 1조 4,25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0~49인' 규모 매출액이 5,612억 원 (20.5%), '5~9인' 은 2,696억 원(9.8%), '100인 이상' 은 2,445억 원(8.9%), '50~99인' 은 2,400억 원(8.8%)순으로 나타났다. '1~4인', '100인 이상' 규모의 매출액과 '10~49인' 규모의 매출액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50~99인' 을 비롯한 그 외 규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4.3.16 종사자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31,696	68,997	144,568	56,368	26,358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1,063	17,140	4,139	-	-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4,936	4,488	-	-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676	-	-	-	-	676
음반 복제업	21,387	16,934	-	-	-	38,321
음반 배급업	4,763	5,698	34,244	-	-	44,705
음반 도매업	2,136	9,658	24,861	-	-	36,655
음반 소매업	25,367	11,698	26,052	-	-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20,267	-	-	-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76,502	-	-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263	4,968	51,638	116,369	186,731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3,167	5,632	51,532	-	-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6,368	12,257	27,236	16,938	-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6,892	35,985	89,635	50,367	31,480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3,693	6,125	23,485	-	-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1,262,551	70,052	7,393	-	-	1,339,996
<b>합계</b>	<b>1,425,225</b>	<b>269,632</b>	<b>561,285</b>	<b>240,042</b>	<b>244,569</b>	<b>2,740,753</b>
<b>비중(%)</b>	<b>52.0</b>	<b>9.8</b>	<b>20.5</b>	<b>8.8</b>	<b>8.9</b>	<b>100.0</b>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증감률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규모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31.0%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 매출액으로 보면 2007년에 1,425억 원이며, 2008년 1,685억 원, 그리고 2009년에 2,4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50~99인 규모'의 매출액은 2007년에 2,185억 원에서 2008년에 3,092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2,4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전년대비 22.4% 감소한 반면 연평균은 4.8%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10~49인'은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2.9% 증가하였다. '5~9인'은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연평균은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1~4인'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7.4% 증가하였다.

**표 4.3.17 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	합계
2007년	1,234,782	231,509	530,242	218,578	142,593	2,357,704
2008년	1,389,080	275,708	459,451	309,274	168,562	2,602,075
2009년	1,425,225	269,632	561,285	240,042	244,569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2.6	▽2.2	22.2	▽22.4	45.1	5.3
연평균증감률(%)	7.4	7.9	2.9	4.8	31.0	7.8



그림 4.3.19 종사자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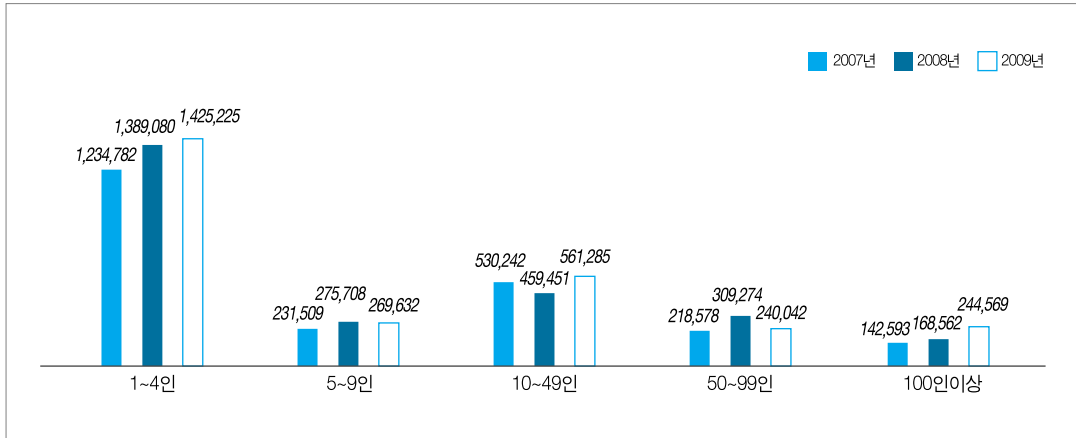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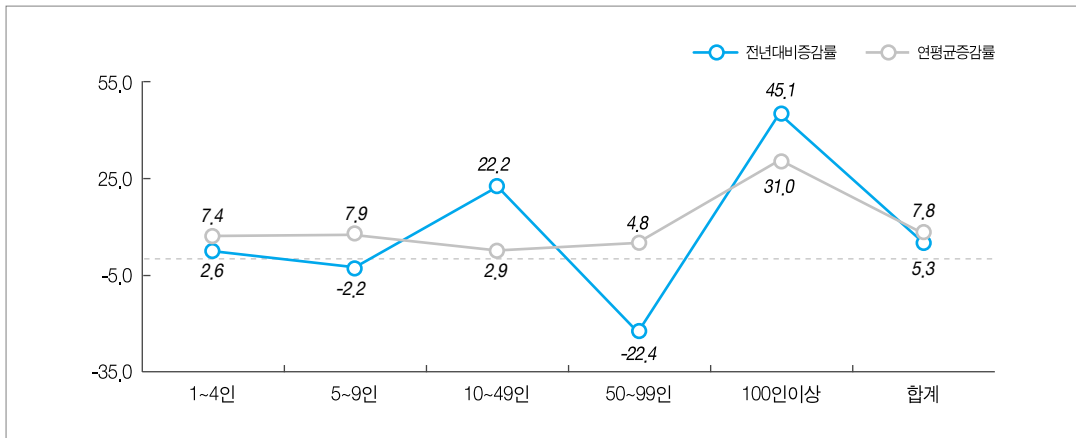


그림 4.3.20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3.2.10. 지역별 매출액

2009년 음악산업은 매출액의 50.6%인 1조 3,753억 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210억 원(15.5%), 부산이 1,184억 원(4.4%), 인천이 1,065억 원(3.9%), 대구가 1,054억 원(3.9%)순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음악산업 매출액 규모가 1천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매출액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9개도의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18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음악제작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배급/복제/도소매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구성비 (%)
서울	311,799	101,710	525,288	188,240	248,293	1,375,330	50.6
부산	1,598	9,325	6,123	7,493	93,954	118,493	4.4
대구	1,307	6,934	4,936	6,125	86,144	105,446	3.9
인천	1,126	6,363	4,882	5,714	88,434	106,519	3.9
광주	689	5,139	1,725	1,968	47,203	56,724	2.1
대전	588	5,016	1,331	1,693	47,465	56,093	2.1
울산	79	1,753	-	852	41,194	43,878	1.6
경기도	41,369	38,212	25,316	29,946	286,182	421,025	15.5
강원도	253	1,321	-	1,335	44,311	47,220	1.7
충청북도	195	6,925	-	1,266	41,682	50,068	1.8
충청남도	197	1,962	-	1,968	54,938	59,065	2.2
전라북도	123	1,553	-	1,563	38,791	42,030	1.5
전라남도	225	1,611	-	2,187	42,621	46,644	1.7
경상북도	249	2,019	-	2,611	79,873	84,752	3.1
경상남도	151	2,502	-	2,693	85,355	90,701	3.3
제주도	381	553	-	2,008	13,556	16,498	0.6
합계	360,329	192,898	569,601	257,662	1,339,996	2,720,486*	100.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음반 소매업제외)

지역별 매출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2007년에 1조 1,922억 원에서 2008년에 1조 2,952억 원, 그리고 2009년에는 1조 3,75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6.2%, 연평균 7.4%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07년에 3,519억 원, 2008년에 4,110억 원, 그리고 2009년에 4,21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2.4%, 연평균 9.4% 증가하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2007년 매출액이 884억 원에서 2008년 792억 원, 2009년에 1,065억 원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비하여 약 34.4% 가량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9 연도별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1,192,294	1,295,296	1,375,330	6.2	7.4
부산	115,254	117,990	118,493	0.4	1.4
대구	92,706	104,352	105,446	1.0	6.7
인천	88,478	79,266	106,519	34.4	9.7
광주	49,486	53,644	56,724	5.7	7.1
대전	47,539	54,716	56,093	2.5	8.6
울산	35,321	40,704	43,878	7.8	11.5
경기도	351,924	411,024	421,025	2.4	9.4
강원도	37,753	45,186	47,220	4.5	11.8
충청북도	34,989	47,497	50,068	5.4	19.6
충청남도	43,706	54,582	59,065	8.2	16.3
전라북도	34,413	44,801	42,030	▽6.2	10.5
전라남도	47,602	48,428	46,644	▽3.7	▽1.0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경상북도	74,662	83,432	84,752	1.6	6.5
경상남도	82,860	88,253	90,701	2.8	4.6
제주도	14,800	16,270	16,498	1.4	5.6
합계	2,343,787	2,585,441	2,720,486	5.2	7.7

\* 외부인용자료(인터넷음반 소매업)제외

매출액을 6개 광역시와 9개도로 나누어 보면 6개 광역시의 2007년 매출액은 4,287억 원에서 2008년에 4,50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4,871억 원으로 약간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9개도의 2007년 매출액은 7,227억 원, 2008년 8,394억 원, 그리고 2009년에 8,58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3.21 연도별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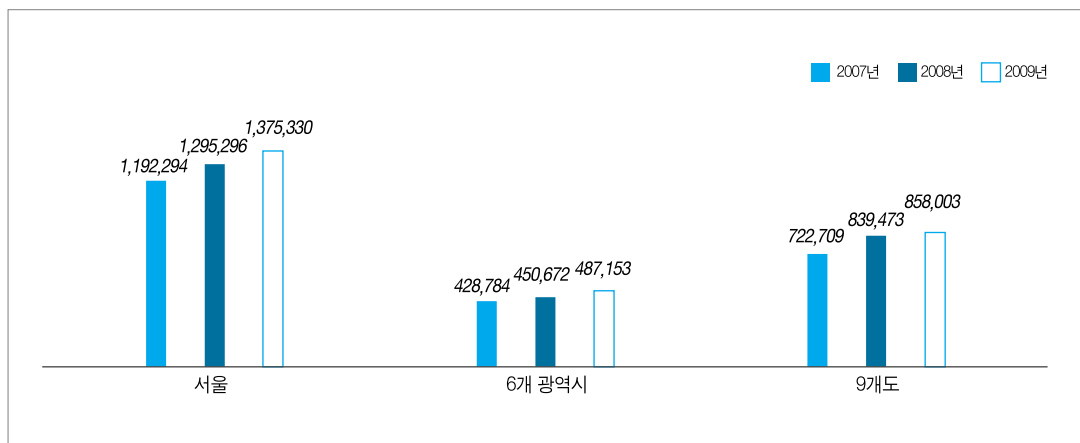


그림 4.3.22 지역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